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硏究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

목차

Ⅰ. 머리말
Ⅱ. 사리구장엄구 현황
Ⅲ. 사리장엄구 편년과 양식
1. 탑 조성시기(982년)
2. 조선 전기(1492년)
3. 조선 후기
Ⅳ. 사리장엄구의 의의
1. 중창기의 중요성
2. 불상 봉안의 의미
Ⅴ. 맺음말

국문초록

금산사 오층석탑을 해체하여 수리할 때 탑안에서 〈母嶽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와 각종의 사리구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중창기에는 금산사 오층석탑의 조성시기와 중창불사 현황과 관련 인물 등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단절된 조선 전기 금산사에 대한 역사를 이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뿐만아니라 동제사리합과 작은 합 2점, 청동오층탑과 엽전 7점, 그리고 불상 8구와 동자상 1구 등 일체의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는 조선 초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기에는 금산사 오층석탑의 해체과정, 사리장엄구의 발견, 그리고 탑 안에 다시 사리장엄구를 봉안하는 과정까지 묘사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덕원군을 대공덕주로 한 왕실의 지원에 힘입어, 이 지역의 지방관료, 그리고 스님들이 대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는 탑의 조성시와 중창당시에 매납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시기별 특징을 담고 있다. 특히, 탑내 봉안된 불상들은 1492년 탑을 중창할 당시 조성하여 스님들이 모셨던 원불로, 16세기 전후의 불교조각사 양식을 이해하는데 단서가 되는 불상들이다. 이렇게 불상을 탑에 봉안하는 것과 봉안한 불상에 불복장과 사리를 넣는 사리장엄구의 독특한 특징은 매우 흥미롭다.

금산사 탑에 불상을 봉안하였던 이유는 불상 신앙이 고조되면서, 개인의 소원을 비는 구복적 원불신앙의 유행에 기인한 듯 하다. 즉, 법당에 불상을 봉안하듯이 탑에 불상을 봉안하였던 당시 신앙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주제어 :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중창기, 조선전기 불사, 왕실발원,
탑 봉안 불상

Ⅰ. 머리말

금산사는 진표율사가 중창했으며 미륵장륙상을 주불로 모심으로써 法相宗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 1079년(문종 33) 고려시대에도 법상종의 대종사이자 왕사인 慧德王師가 금산사 주지로 부임하여, 대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때 雷默處英과 최초의 의승군 봉기를 하였던 騎虛靈圭가 금산사를 중심으로 의승군 전투에 참여하여 왜군에게

〈도 1〉 〈금산사 오층석탑〉, 석조, 높이 7.2m, 고려시대, 전북 김제 금산사

크게 타격을 주었다. 왜군을 물리치는 데 중심이 된 금산사는 1598년(선조 31) 왜병의 방화에 의해 오층석탑과 일부 석조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 있는 건물들과 성보문화재는 17세기 이후에 재건되어 조성된 것이다.

다행히 전란의 피해에서 보존된 금산사 오층석탑(도 1)은 1971년 11월에 탑을 보수하기 위해 해체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탑 내에 봉안되어 있던 각종 유물이 발견되었다.[1]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와 불상 8구, 동자상 1구, 역사상 1구, 그리고 청동오층탑과 엽전 7점, 동제사리합과 작은 합 두 점이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의 사리장엄구이다.[2]

그러나 이 유물들의 발견 현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가 없어, 원래의 봉안된 형태와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

1) 이 논문은 이분희,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考察-탑안에 봉안된 불상을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 15(동악미술사학회, 2013), pp. 117-144을 기반하여 확대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앞의 논문기술시에는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일부만을 조사하였기에 전모를 밝히지는 못했다.

2) 사리장엄은 탑 내부 및 그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과 장치, 위치에 따라 사리장엄구, 사리구, 공양구 등으로 혼용되어 용어가 통일되지 못하였다. 김희경은(『사리구』, 대원사, 1996, p.8) "사리구는 사리용기와 함께 봉안되는 공양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탑 안의 사리공에 봉안되는 것"이라 하였다. 강우방은(『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1993, p.8) "사리장엄"이란 용어를 "사리를 직접 봉안하는 다중구조의 사리용기와 법사리로서 봉안하는 경전, 다라니를 납입한 탑, 불상, 공양구, 지진구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대현은(「열반과 사리신앙」, 『열반, 궁극의 행복』 (불교중앙박물관, 2014.7), p.187) "사리장엄이란 탑 등에 사리를 봉안하는 행위나 의식, 혹은 사리를 담는 용기인 사리기를 포함하는 사리구 전체를 지칭한다고 했다. 주경미는 (「중국 고대 舍利裝嚴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에서 "탑을 세우는 것은 사리에 대한 가장 큰 장엄이며, 사리장엄에 있어서 가장 바깥의 용기라 할 수 있다"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舍利莊嚴具의 개념을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사리장엄은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사리를 모시기 위해 탑 등에 사리를 봉안하고 장엄에 필요한 다양한 장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의례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단지 1971년 11월 13일부 전북지사가 문공부장관 앞으로 보낸 보고형식의 전문만 있을 뿐이다.[3] 이후 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일괄은 동국대 박물관에 계속 보관되어 오다가 금산사 성보박물관을 지으면서 옮겨와 현재는 금산사성보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4]

이 금산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일괄 사리장엄구에는 조선 초기 불교계가 어떻게 불사를 진행해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량의 불상, 더구나 규모와 작품성이 뛰어난 많은 불상들이 발견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탑의 조성시기부터 중창된 시기에 따라 여러 차례 사리장엄구의 봉안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금산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그 중요성과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금산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에 대한 한국미술사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발견된 사리장엄구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여러 시기에 매납된 사리장엄구가 섞여 있으므로, 편년과 양식을 분석하여 조성시기와 매납시기를 파악하여 보겠다. 이 사리장엄구가 어떠한 특징과 의미로 봉안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 중요한 의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3) 문공부에 보고된 유물은 중창기를 비롯하여 불상 7구, 금동역사상, 동제사리합(수정구슬, 호박자기 1조등) 3점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남아 있는 유물은 불상 8구와 동자상 1구, 역사상 1구가 있어서 보고된 내용과 맞지 않다.

4)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에 관한 현황 소개는 진홍섭,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硏究」, 『考古美術』 80(韓國美術史學會, 1988), 강우방, 「佛舍利莊嚴論」, 『佛舍利莊嚴』(국립중앙박물관, 1991) 참조.

Ⅱ. 사리구장엄구 현황

금산사 오층석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는 한 시기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탑을 여러 차례 중수하는 과정에서 시기별로 여러 차례 납입된 경우로 추정된다. 우선 그 현황을 살펴보겠다.

1. 『모악산 금산사 오층석탑중창기』(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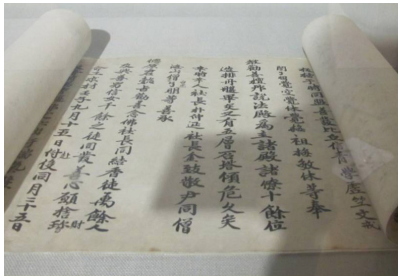
길이 195.5cm의 종이에 해서로 쓴 墨書이다. 본문의 字徑은 1.5cm로 1492년(성종 23) 금산사 오층석탑을 중창할 당시 기록했던 것으로, 탑의 중창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그 이전 시기 행해진 불사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다.

2. 금동제사리병(도 3)

금동사리병은 세 조각으로 깨져 있는데, 그 본체의 높이는 3.5cm이다. 발견당시 보고된 내용에 수정구슬, 호박자기 1조 등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3. 은제사리합 2조(도 4)

작은 합 2조는 은을 두들겨 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크기가 작은 합은 지름 2cm 내외이다. 작은 합을 큰 합에 넣어 이중으로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도 2〉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紙本墨書, 길이 195.5cm, 조선 1492년,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3〉 〈금동사리병〉, 동제, 본체 길이 3.5cm, 원지름 9.5c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4〉 〈은제사리합〉, 은제, 작은 합 원지름 2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5〉 〈청동원통형합〉, 동제, 높이 14cm, 원지름 9.5c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4. 청동원통형합(도 5)

뚜껑을 가진 2중의 합으로 표면에는 가는 선을 가로방향으로 빈틈없이 음각하였다. 뚜껑의 지름은 9.5cm이며, 높이는 2cm이다. 겉면은 턱이 없고 안으로 2cm 파서 맞물리게 하였다. 2중의 합의 몸체 높이는 14cm이며, 무게는 가벼운 편이다.

5. 청동오층탑(높이 7.8cm)(도 6)

탑 안에 소탑을 공양한 것이다. 밑면에 다라니를 넣는 공간이 없다.

6. 청동사각사리함(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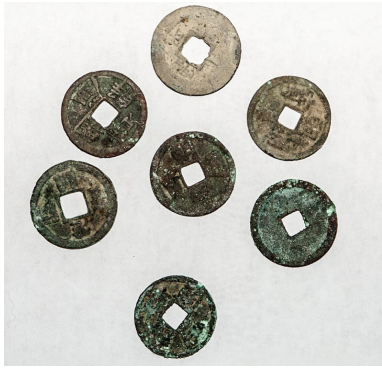
사각형의 몸체와 위로 좁아지는 반원형의 뚜껑에 꼭지가 달려 있다. 몸체 아래의 기단부에는 사면 모두 眼象을 표현하였다.

7. 엽전 7개(도 8)

이 동전 가운데 5개는 朝鮮通寶이고, 2개는 常平通寶이다.

〈도 6〉 〈청동오층탑〉, 동제, 높이 7.8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7〉 〈청동사각사리함〉, 동제,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8〉 〈엽전〉, 동제,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9〉 〈홍옥〉, 옥, 지름 1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10〉 〈숟가락〉, 놋쇠, 고려시대, 금산사성보 박물관

8. 홍옥 1개(도 9)

홍옥은 지름 1cm이며 가운데 구멍이 있다. 목걸이 등에 사용된 것을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9. 숟가락 1개(도 10)

놋쇠로 만든 숟가락이다. 시면은 긴 타원형이며 자루 끝에는 제비꼬리가 없다.

10. 불상들

불보살상이 8구, 그리고 백옥 동자상 1구, 역사상 1구이다.

〈도 11〉 〈금동불입상〉, 금동, 높이 7.5c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12〉 〈금동불입상〉, 금동, 높이 9cm, 통일신라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1) 금동불입상(높이 7.5cm)(도 11)

이 불상은 거의 판불로 착의법은 통견식으로 입었고, 시무외 · 여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2) 금동불입상(높이 9cm)(도 12)

이 불상 착의법은 통견식으로 입었고, 시무외 · 여원인의 수인을 하고 있다. 뒷면은 세 군데에 구멍을 두어 내토를 빼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금동역사상(높이 5cm)(도 13)

이 상은 금강역사를 표현한 것으로, 뒷면을 살펴보면 어딘가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 13〉 〈금동역사상〉, 금동, 높이 5cm, 미상,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14〉 〈옥제동좌좌상〉, 백옥, 높이 4.5c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4) 옥제동좌좌상(높이 4.5cm)(도 14)

백옥으로 만든 높이 5cm의 작은 상으로 연봉과 줄기를 잡고 있는 동자상이다.

5)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30.5cm, 대좌고 6cm, 슬폭 16.5cm, 어깨폭 10.5cm)(도 15)

발견된 불상군 중에서 높이 30.5cm로 가장 큰 불상이다. 보관에는 화불이 새겨져 있으며, 왼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

6)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12.5cm, 대좌고 3cm, 슬폭 8cm, 어깨폭 6cm)(도 16)

이 상은 천의식 옷을 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관에는 화불이 표

〈도 15〉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 높이 30.5cm, 대좌고 6cm, 슬폭 16.5cm, 어깨폭 10.5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16〉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 높이 12.5cm, 대좌고 3cm, 슬폭 8cm, 어깨폭 6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

현되었다.

7) 금동지장보살좌상(높이 8.2cm, 슬폭 6.8cm)[5](도 17)

보주를 손에 들고 두건을 쓴 상으로 존명은 지장보살상이다.

8) 금동비로자나삼존상(비로자나불 높이 14cm, 관음보살상 높이 12.8cm, 지장보살상 높이 12cm)

비로자나불상과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을 삼존으로(도 18) 구성하여 함께 조성한 상들이다.

---

5) 이 상은 머리부분의 손상으로 두건을 쓴 것을 파악하기 어려워 논문에 약사여래좌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머리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으로 확인되었다. 진홍섭,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硏究」, 『考古美術』 80(韓國美術史學會, 1988), p,78 참조.

〈도 17〉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 높이 8.2cm, 슬폭 6.8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도 18〉 〈금동삼존상〉, 금동, 비로자나불입상 : 높이 14cm, 관음보살입상 : 높이 12.8cm, 지장보살입상 : 높이 12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이렇게 다량의 많은 성보문화재가 봉안되어 있었다. 다음은 이 사리장엄구의 양식과 사료를 분석하여 편년을 구분하여, 매납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Ⅲ. 사리장엄구 편년과 양식

1. 탑 조성시기(982년)

1) 금산사 오층석탑

이 탑은 금산사 경내의 뒷편 松臺라는 언덕에 있으며, 불사리가 봉안된 方等戒壇 남쪽에 있다. 이 탑은 금산사에 전란을 피해 전해오는 유물 가운데 하나인데, 방등계단 앞에 세워져 있어 탑의 위치가 특이하

다. 그래서 금산사 경내에서 언젠가 이 탑을 옮겨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진신사리를 봉안한 佛塔과 戒法의 傳授儀式을 집행하는 계단 앞에는 석등이 세워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산사의 경우는 불전 앞에 庭中塔을 세웠다는 기록들이 전하고 있어, 이 오층석탑도 진신사리가 봉안된 방등계단을 불전으로 인식하여 세워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6]

이 탑은 2층 기단 위에 놓인 5층의 방형 석탑이다. 갑석과 그 위에 얹힌 1단의 괴임은 판석을 여러 개 짜맞춘 형식이며 탑신부 1층까지 여러 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옥개석은 두꺼운 편이며 밑면의 받침이 3단으로 줄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넓고 경사는 급한 편이다. 탑 전체를 볼 때 2층 이상부터 체감비율이 적은 편이나 1층 옥개가 넓어 안정감을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라 석탑의 구성을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하층기단이 작아지고, 상하층 기단의 갑석 위에 판석을 삽입하여 굄으로 삼은 점, 옥개석 추녀 밑선이 곡선으로 된 점은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다. 이 탑은 951년에 세워진 개성시 불일사 오층석탑과(도 19) 그 모습이 유사하다.

탑 안에서 발견된 1492년에 쓰여진 『모악산 금산사 오층석탑중창기』에 탑의 조성시기와 관련된 내용이 쓰여 있었다. 중창기의 끝부분에 "옛날의 기록을 다시 베껴 썼다"라고 전제한 후, "금산사 오층석탑의 조성은 大平興國四年(979년)에 시작하여 大平興國七年(982년)에 마쳤다"라고 기록하였다.[7] 그동안 탑의 건립 시기에 대해서 양식

6) 한국불교연구원, 『韓國의 寺刹11-金山寺』(一志社, 1985), pp.77-86 참조, 『金山寺事蹟記』에 의하면 금산사 대장전도 미륵전의 庭中 우측에 위치했던 庭中 木塔이었다고 한다.

〈도 19〉 〈불일사 오층석탑〉, 석조, 951년, 개성 고려박물관

〈도 20〉 〈하치우마 다다스 기증 사리병〉,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을 분석하여 고려 초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이 기록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8]

1971년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없어 다량의 사리장엄구와 불상들이 탑의 어느 위치에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금산사 오층석탑의 1층 탑신에 봉안되었다고도 전해지기도 하는데,[9] 1층 탑신의 크기는 가로 135cm, 세로 81cm의 규모로 앞에서 소개한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봉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7) "石(右)塔昔(者)書載錄 大平興國四年起始 大平興國七年壬吾歲畢造 焉諸惱流社長化主施主記于後列"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8) 고유섭, 「金堤 金山寺 舍利塔 및 五層石塔」, 『韓國塔婆의 硏究』 (동화출판사, 1967), p.37에서 개성을 중심으로 한 고려석탑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아 조성시기를 고려전기로 파악하였다.

9) 한국불교연구원, 『韓國의 寺刹11-金山寺』(一志社, 1985), pp.80 참조.

중창기의 기록내용에 탑의 여러 층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사리장엄구의 봉안위치는 크기가 가로 243cm, 세로 82cm인 상층 기단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금동제사리병[10]

금동제사리병은 탑을 조성할 당시 가장 안쪽 사리병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1] 세 조각으로 깨져 있고 뚜껑은 소실된 것으로 보이며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병의 표면에는 금을 입혔던 흔적이 남아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했던 사리호가 유리재질이었던 것이 비해, 이 사리병은 청동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러한 청동 사리병은 왕흥사지 사리장엄구나 미륵사지 사리호 등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지만 고려시대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다. 이와 유사한 사리병은 광주 신룡리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병[12]과 일본인 하치우마 다다스八馬理가 1994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사리병으로 알려진 전라남도 영암 도갑사 부근 탑에서 출토된 사리병과(도 20) 유사하다.[13] 보주형의 꼭지가 달려 있고 목이 길고 몸체가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10) 발견 당시 수정구슬, 호박자기 1조 등이 있었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았다.

11) 이 사리병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 발견한 사리병이다. 이전에 이 사리병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작은 은합을 탑 조성 당시 사리를 담은 용기로 파악하였다. 당시 사리장엄구 구성에서 원통형의 합 안에 사리병에 사리를 담는 것이 사례로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 청동사리병을 사리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12) 신명희, 「高麗時代 舍利莊嚴具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67참조.

13) 불교중앙박물관,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2012. 12), p.48 참조.

3) 원통형 합

뚜껑을 가진 2중 원통형 합은 고려 초기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 사리합은 뚜껑을 가진 2중의 합으로 가는 선을 가로방향으로 빈틈없이 음각하였다. 이중의 합으로 구성되어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사리를 봉안한 형태이다. 화엄사 동오층석탑 청동원통형사리합과 장명사명오층석탑(997년)의 청동원통형사리합과 유사하다. 아산 읍내리 석탑 발견 사리구에서도 같은 형태의 사리합이 발견되었다. 탑을 조성하였다는 979년~982년 중창기 기록과 시대가 일치하여 탑을 조성했던 시기에 매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통형 사리기는 고려 초부터 등장하는 형태인데, 일본에서는 주로 경전을 넣는 경통으로 사용되었다. 경전을 법사리로 사리와 같은 의미로 봉안하던 것이 사리기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 사리기는 10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14]

4) 청동오층탑(높이 7cm)

통일신라시대 탑의 조성과 중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경전은『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었다. 이 경전의 내용은 부처가 한 바라문을 구원한 이야기이다. 다라니를 외우고 불탑을 수리하고 작은 불탑을 만들어 그 안에 다라니를 써서 넣고 공양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전은 탑을 중수하는 공덕을 쌓

14) 권아름,「高麗 舍利莊嚴具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70 참조.

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조상의 명복을 빌고, 복을 기원하는 성격의 신앙을 설한다.[15] 탑의 조성과 중수공덕을 강조한 이 경전의 영향은 고려시대까지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처럼 경전에 의거해 77기나 99기의 소탑을 안치한 예는 없고, 석탑이나 목조건축을 모방하여 한두 기만 봉안한 예가 많다. 또한 소탑의 밑면에 다라니를 넣은 구멍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소탑의 밑면도 막혀 있다.

고려시대 탑 안에서 『무구정경』이 발견된 예는 없지만, 무구정경의 법식에 따라 탑 안에 소탑을 봉안하였다. 그 수가 소략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통일신라시대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리장엄구로 탑이 많이 봉안되었으며, 탑의 사면과 난간 등에 각종의 상을 조성하는 것도 등장하였다.[16] 이 청동오층탑의 형태는 금산사 오층석탑의 비례감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여 탑을 조성했던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숟가락 1개

청동으로 제작한 숟가락이다.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이와 비슷한 숟가락 2점이(도 21) 발견된 바 있다. 시면은 긴 타원형으로, 손잡이의 굵기는 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 숟가락보다 굵지만 비슷한 시기

15) 신용철, 「신라 불탑에 있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 「불교학연구」 제23호(불교학연구회, 2009. 8), p.343.

16) 고려시대 조성된 금속제 탑에 관련해서는 김윤정, 「고려시대 금속제 소형탑의 조성 배경과 유형」, 『미술사연구』 25(미술사연구회, 2011. 12), pp.209-240 참조; 박보군, 「고려시대 금속제 탑 연구」(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4) 참조.

〈도 21〉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봉안 숟가락 , 화엄사성보박물관

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숟가락의 용도는 1959년 감은사지 서탑 3층 탑신석 윗면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에서 함께 발견된 집게와 작은 숟가락의 용도가 사리를 사리병에 넣을 때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아 탑에 숟가락을 넣는 것은 이러한 의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17]

6) 금동불입상(높이 7.5cm)

이 불상은 거의 평면적인 신체에 착의법은 통견식으로 입었다. 그러나 옷주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머리와 얼굴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선은 일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배면을 보면 거의 파져 있어 판

17) 금산사 탑에서 발견된 숟가락의 용도에 대해서는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스님의 조언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불에 가깝다. 이렇게 불상의 신체가 평면에 가까운 판불 형태는 통일신라 하대부터 진행되었는데, 이 불상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7) 금동불입상(높이 9cm)

이 불상은 통통한 얼굴, 높은 육계에 착의법은 통견으로 입었다. U자형의 대의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상의 뒷면에는 세 군데에 구멍을 두어 주조시 내토를 빼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개금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 8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금동역사상(높이 5cm)

이 상은 금강역사를 표현한 것으로 거의 평면화된 형태이다. 뒷면을 보면 어딘가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시대 청동 소탑에 불보상과 역사상 등이 표현한 예가 많으므로 청동탑의 난간 등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 옥제동자좌상(높이 4.5cm)

높이 5cm의 작은 백옥상이다. 연봉과 줄기를 잡은 오동통한 손과 발을 귀엽게 표현은 아기상이다. 조각기술이 뛰어난 이 상은 눈동자를 검은색으로 칠하였고, 코와 입, 발가락, 손가락까지 섬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연화화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화화생하는 모습은 고려시대의 青磁辰砂蓮華文瓢形注子 등에 표현된 연줄기를 잡고 있

〈도 22〉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장엄구 일괄〉, 고려, 월정사성보박물관

는 동자의 모습과 유사하다. 고려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단독 상이라기보다 어느 곳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4구의 상들은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은 금동불입상(높이 9cm)으로 추정된다. 이 상들은 탑의 조성시기에 봉안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후 조선시대 중창할 시에 납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매납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탑 안에 불상을 봉안한 사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전승되는 전통이었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도 22)과 아산 읍내리 석탑에서도 불상이 봉안되었던 사례를 통해 탑 조성시에 납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하겠다.

2. 조선 전기(1492년)

다음은『모악산 금산사 오층석탑중창기』에 기록된 1492년 중창 당시 조성되어 매납된 사리장엄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1)『모악산 금산사 오층석탑중창기』(길이 195.5cm 종이에 해서로 묵서, 본문의 字徑은 1.5cm)

이 금산사 오층석탑중창기는 1492년(성종23년) 중창시 기록한 것인데, 탑의 중창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그 이전에 불사에 대한 기록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산사는 원래 가섭불시대의 옛 터전이었다'라고 시작하여 진표율사가 삼층미륵전과 장육삼존을 조성한 사실을 적고 있다. 過去佛인 迦葉佛 때의 옛터를 중흥한 것으로 되어 있다.[18] 이는 금산사의 터전에 오랜 佛緣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庚辰(1460년)에서 辛巳(1461년) 사이에 퇴폐해진 설법전과 여러 전각과 요사 십 여 채를 보수하여 단청했던 사실을 적고 있다. 이는 세조대왕이 중흥불법하고 고기선찰을 중수하라는 교지를 따른 것이다.[19]

---

18) "夫此寺者伽葉佛時古基王泰祖　重興國寶第一禪刹之最也年久而傾危頹圮大歷　元年丙吾歲眞表律師勸善檀緣彌勒大殿三層丈六三尊鑄成及與諸殿諸僚俱排矣像季已還道術旣裂明心之士忘認緣　塵爲物所轉修善作福者今已久矣越庚辰辛巳年間",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19) "世祖大王朝重興佛法古基禪刹重修 敎旨板 楞于時同盟善發比丘信靑學虛竺文戒聞了明覺空覺林覺 梅祖敏休等奉 敎勸善檀那說法殿爲主諸僚十餘位 造 排丹艧畢矣",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그 다음 오층석탑에 관한 중수기록인데 壬子년(성종 23년, 1492년) 구월 십오일에 시작해서 같은 달 이십오일까지 즉 약 10일간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탑을 해체하였을 시 이상한 향기가 솟구치고 장육상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차는 등 이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 탑 안에는 옛날에 있었던 석가여래사리 5매와 정광여래사리 2매가 있었는데, 정광여래 1매의 사리가 분신하여 모두 3매가 된 사실을 적고 있다. 놋쇠로 만든 사리합 장치를 열어 만인이 사리에 공경을 다했다는 내용이다.[20]

그리고 이어 약 50일 뒤인 11월 15일, 탑을 해체한 지 2달 후 사리장엄구를 다시 매납하였다. 이 때 료명과 학유스님이 願佛을 조성하여 함께 탑 안에 넣었으며, 중창기도 기록하여 함께 봉안하였다[21]고 한다.

이 중창기의 끝부분에는 옛날의 기록을 다시 베껴 썼다고 하였으며, 이 탑이 고려 경종 4년(979년)에서부터 성종 원년(98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22]

그리고 나머지는 불사에 참여한 시주자와 조성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다. 세조의 서자인 덕원군을 비롯하여 직책과 이름이 함께 나오는 8명과 조성질을 따로 마련하여 조성에 참여한 인물들 21명

---

20) "又有五層石塔傾危久矣 幸時幸人社長朴仲延社長金致敬尹同僧 海山僧白忠了明等善承德原君 懿旨勸善 念佛社長同結香徒萬與人 及與善男信女千餘之徒同發善心願捨珎財 命工求材壬子九月十五日赴役同月二十五日 破塔時異香馥丈六出汗瑞氣盤空塔內 舊標釋迦如來舍利五枚定光如來舍利二枚分 身一枚幷三枚 鍮筒藏置開出萬人致敬",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21) "右舍利壬子十一月 十五日還藏塔中又了明願佛鑄像學宥員佛 鑄像兼塔中",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22) "石(右)塔昔(者)書載錄 大平興國四年起始 大平興國七年壬吾歲畢造 焉諸惱流社長化主施主記于後列",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이 등장하는데 鐵匠을 제외하고 모두 스님들이다. 말미에는 사내 대중수 이백여 명이라고 하여 당시의 중창불사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그리고 그 위아래로 직책없이 162명의 이름만을 적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23]

〈표 1〉 중창기 구성 및 과정

날짜	중창과정	배경	참여인원
1460년~61년	설법전과 여러 전각 요사 십여채 보수 및 단청	세조대왕의 교지	신청, 학희, 축문, 계음, 료명, 각공, 각휴, 각매, 조매, 민휴 등
1492년 9월 15일 ~25일	- 오층석탑 파탑(해체) - 기존의 유통장치 발견 - 미륵상의 발한, 향기와 서상, 분신사리	덕원군의 뜻	염불사장을 권선하여 향도 만 여인이 결합하고 또 일반대중이 천 여 명이 참여
1492년 11월 15일	- 사리장치 탑에 매납 (료명과 학유 원불 포함) - 중창기 기록함		
979년~982년	- 고려 경종 4년부터 성종 원년에 걸쳐 조성 했던 사실	옛날 기록을 다시 베껴서 썼다고 함	

이 기록은 동시대의 다른 불사의 경우 조성시기와 발원내용, 시주자 등만 간략히 기록하는 것에 비해 매우 자세하게 당시의 시대상황을 적고 있다.

23) 중창과정과 배경에 대한 내용은 이분희, 앞의 논문(동악미술사학회, 2013), pp.118-124 참조.

2) 은제사리합 2조

은을 두들겨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작은 합은 지름 2cm 내외이며, 큰 것은 작은 합이 포개질 정도이다. 이러한 원형의 사리합 형식의 사리구는 639년의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청동합과 645년 신라 황룡사 목탑지 사리공에서 발견된 금제합과 은제합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재질이 다양해져 청동 대신 자기로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김시습 부도의 사리장엄구의 외합, 봉인사 사리탑의 사리합에서도 나타나듯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사리합은 석가탑 출토 은합과 월정사 석탑 출토 은합의 계란형의 사리기보다 납작한 형태이다. 정확한 조성시기를 알기 어려우나 이런 특징은 고려 중기 이후에 나타난다.[24] 같은 모양의 합을 두 개 겹쳐서 봉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작은 합은 사리를 직접 봉안한 용기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탑의 조성시기에 사리용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후대 중창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불보살상군

다음은 '료명이 원불을 주성하고 학유가 원불을 주성하여 함께 탑 안에 넣었다' 라고 중창기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중창 당시 불상을 주조하여 탑 안에 봉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492년 중수 당시 봉안되었

24) 주경미, 「고려시대 월정사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재론(再論)」,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pp.74-77 참조.

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을 살펴보겠다.

(1)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30.5cm, 대좌고 6cm, 슬폭 16.5cm, 어깨폭 10.5cm)

발견된 불상군 중에 높이 30.5cm로 가장 큰 불상이다. 보관에 화불이 있고, 왼손에 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상이다. 얼굴이 크고 침잠한 표정이다. 어깨폭이 좁고 무릎은 낮아 전체적으로 신체비례가 불균형하다. 이마가 좁고 큰 백호에, 눈은 가늘고 길게 올라가게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청동녹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개금했던 흔적이 보인다. 보관을 따로 제작하여 쓰는 형식이 아니라 불신과 함께 하나로 주조하였다.

대좌 부분만 비어 있게 주조하여 매우 무겁다. 대좌 부분의 공간에는 복장을 하였던 흔적은 있으나 남아 있지 않다. 대좌는 연꽃잎이 맞붙어서 돌아가게 표현한 형식이다. 이는 티베트식 불상대좌의 전형적인 모티브로 중국 명대 불상양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보관은 개성 관음사 보살상, 경주 기림사 보살상과 비슷하여 조선 전기 유행한 형식을 따르고 있다. 군의 상단의 직선적인 옷주름과 평평한 가슴, 발목에서 당겨진 옷주름의 직선적인 표현에서 조선 전기 중창할 당시 조성된 보살상으로 추정된다.

(2)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12.5cm, 대좌고 3cm, 슬폭 8cm, 어깨 폭 6cm)

12.5cm의 작은 상으로 천의식 옷을 입고 있다. 천의 자락이 양 어깨을 감싸고 팔목에서 한번 둘렀는데 자연스럽지 않고 경직되어 보인다. 보관은 당초문으로 장식된 투각되지 않은 조선 초기의 대구 파계사 관음보살상과 비슷한 보관을 쓰고 있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아미타설법인을 짓고 있다. 보관은 앞면에만 높게 세워져 있다.

뒷면에서 보면 상투를 튼 머리카락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발은 양 귀를 가리고 한번 크게 묶은 다음 머리카락 한 가닥을 아래로 내렸다. 직선의 군의 상단에 추상적인 영락 표현, 어색한 자세, 맞붙어 돌아가는 연꽃이 표현된 대좌에서 조선 전기 불상양식과 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 역시 대좌부분만 비어 있고 황색의 직물류가 일부 남아 있어서 복장을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금동지장보살좌상(높이 8.2cm, 슬폭 6.8cm)

머리 윗부분이 손상되어 존명의 구별이 어렵지만 뒷면에서 보면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손가락 끝은 손실된 상태이나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오른 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것으로 보인다. 높이 8.2cm의 작은 상으로 보존상태도 가장 좋지 않다. 특히 머리부분의 손상이 심하여 일부 손실된 것으로 보인다. 손은 크게 묘사되었고 편편한 대의식 옷을 입고 있다. 작은 얼굴도 마모가 심하다. 상체보다 무릎 폭이 넓게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도를 보인다.

이 상도 가슴과 양 무릎의 의습선에 경직된 직선적인 선이 표현되

어 있어, 위의 상들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 금동비로자나불입상(높이 14cm), **(5) 금동관음보살입상**(높이 12.8cm), **(6) 금동지장보살입상**(높이 12cm)으로 삼존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들이다.

먼저 금동비로자나불입상(높이 14cm)은 불신과 팔각대좌를 별도로 주조하여 연결한 형태이다. 이 상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고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고 검지로 누른 권인을 하여 존명이 비로자나불임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상 가운데 입상으로 중요한 사례이다. 고려 전기까지의 거의 모든 비로자나불은 손의 위치만 변할 뿐 동일한 형식의 지권인 수인을 하였다.

〈도 23〉 〈고봉국사 주자원불〉, 고려후기, 금동, 송광사성보박물관

그러나 고려 후기부터 권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에는 비로자나불의 대표적인 수인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수인은 구례 천은사 불감 후불벽의 비로자나불상, 순천 송광사 고봉국사 주자원불의 불감 내 비로자나불상 수인(도 23), 남양주 수종사 비로자나불(1628년)상의 수인과 비

슷하다.

대좌는 별도로 주조하였다. 복장은 불상의 몸체 안에 넣은 듯한데, 아직도 불신 안에 복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둥근형의 머리에 굵은 나발로 가득한 머리부분과 눈동자는 검은색으로 칠하였다. 작은 눈과 입, 콧등을 깎은 듯한 코에 통통한 뺨의 아기같은 얼굴을 귀엽게 표현하였다. 대의를 입고 있는 옷의 표현은 신체에 얇게 밀착되어 있다. 어깨가 좁아 부드럽게 흘러 내려온 형태로 옷주름도 자연스럽게 조각되어 있다.

금동관음보살입상(높이 12.8cm)은 보관에 굵은 방울이 장식으로 달려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얼굴은 본존과 비슷하고 옷도 같은 방식으로 입었다. 손을 아래로 내려 맞잡고 있었다. 대의의 양 끝자락이 팔각대좌를 덮게 표현하여 대좌까지 일주식으로 주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머리와 눈은 역시 검은색으로 칠하였다.

금동지장보살입상(높이 12cm)은 앞 상들과 상호는 같으나 머리만 다르게 조각하였는데, 큰 방울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다. 머리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민머리로 표현하여 존명이 지장보살임을 알 수 있다. 옷을 입은 방식은 관음보살상과 비슷하며 수인은 아미타수인의 변형된 표현으로 보인다. 이 금동비로자나불상과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은 삼존으로 조성된 듯하다.

이 불상들은 양식적으로 1500년대 전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불상들이다. 평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강산 차일봉에서 출토된 금동아미타삼존상(도 24)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 민머리 지장보살의 모습은 서산 개심사 협시보살(도 25), 영암 도갑사의 소실된 보살상 등과도 유사하다. 16세기 전후의 양식으로 변모한 상으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작례이다.

〈도 24〉 〈금강산 차일봉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조선전기, 금동, 본존 높이 13.2cm, 평양중앙역사박물관

〈도 25〉 〈개심사 아미타삼존불상〉, 고려후기, 목조, 서산 개심사

이처럼 1492년 중창기 기록에 따라 중창 당시 "옛날에 있었던 석가여래사리 5매와 정광여래사리 2매, 1매의 사리가 분신하여 모두 3매를 놋쇠로 만든 사리합 장치를 열어 만인이 사리에 공경을 다했다"고 하여 원통형 사리합에서 사리를 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옛날에 매납한 유물 외에 1492년 중창당시에는 중창기와 불상을 봉안한 사실을 적고 있다. 이는 사리장엄구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3. 조선 후기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구의 매납은 982년과 1492년 외에도 그리고 17세기 후반의 중수한 시기에 매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장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엽전 7개

이 동전은 조선 후기 중수시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 동전 가운데 5개는 조선통보이며, 두 개는 상평통보이다. 조선통보는 세종대 주조하여 유통하였으나 필요한 수량의 동전을 보급하지 못해 활발히 유통되지 못했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들어서 해서체 조선통보, 팔분체 조선통보 등의 유통이 거듭 시도되었다. 상평통보는 1678년부터 법화로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다고 한다.[25]

---

25) 원유한, 「조선전기 화폐사의 역사적 성격」, 『문명연지』 19(한국문명학회, 2007), pp.78-90 참조.

〈도 26〉 〈공주 신원사 오층석탑 출토 엽전〉 고려시대, 불교중앙박물관

금산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상평통보는, 앞면에는 "常平通寶", 뒷면 상단에는 戶曹를 의미하는 "戶" 주조 관청이 새겨지고, 하단에는 당이전을 의미하는 "二"가 새겨져 있는 當二錢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평통보 당이전은 숙종 5년(1679)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탑 안에 동전이 납입된 것은 그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화폐가 탑 안에 들어간 예들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사리장엄구와 공주 신원사 오층석탑의 사리장엄구(도 26)에도 보이듯이 많은 사례들이 있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입적하면 남긴 물품의 일부분을 사찰에 기부하고, 나머지 대중승려에게 평등히 분배하였다. 골고루 나눌 수 없는 경우 남긴 물건에 값을 붙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에 나누어 갖는다는 청규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26] 또한 분묘제도에서 발생한 의례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짐작되어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26) 金昌淑, 「『禪苑淸規』와 『勅修百丈淸規』의 「亡僧」條에 관한 考察」, 『韓國佛敎學』, 21(한국불교학회, 1996) pp.295-332 참조.

2) 청동제 사각사리합

사각형의 몸체와 반원형의 뚜껑이 있는 사리함이다. 몸체 아래의 기단부에는 4군데 모두 안상을 표현하였다. 몸체에는 얕은 문양이 추상적으로 새겨져 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큰 화문을 새긴 것으로 보인다. 뚜껑에도 역시 화문이 있는데, 도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후대에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금산사오층석탑 사리장엄구의 납입시기

납입시기	사리기		불상		
	명칭	조성시기	명칭	조성시기	도상
탑 조성기 (982년)	원통형 합	고려초	금동불입상 (높이 7.5cm)	고려초기	여래상
	금동제사리병	고려초	금동불입상 (높이 9cm)	통일신라	여래상
	청동5층탑	고려초	옥제 동좌좌상 (높이 4.5cm)	고려	동자상
	숟가락 1개	고려초	금강역사상 (높이 5cm)	고려	금강역사상
1492 중수시	은제 사리합 2조		금동관음보살좌상 (높이 30.5cm)	조선초기	관음보살상
	『중창기』	1492년	금동관음보살좌상 (높이 12.5cm)	조선초기	관음보살상
			금동지장보살좌상 (높이 8.2cm)	조선초기	지장보살상
			금동비로자나불입상 (높이 14cm)	조선초기	비로자나상
			금동관음보살입상 (높이 12.8cm)	조선초기	관음보살상
			금동지장보살입상 (높이 12cm)	조선초기	지장보살상
조선후기	청동제 사리합				
	엽전 7개	17세기 이후			

Ⅳ. 사리장엄구의 의의

1. 중창기의 중요성

금산사 역사에 관한 조선 중기 이전의 기록은 전란으로 소실되었고, 후대에 기록된 것은 매우 허술하고 오류가 많다. 그러므로 중창기는 조선 전기 금산사에서 행해진 중창불사에 대해 소상히 적고 있어서, 금산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료이다.[27] 조선시대는 주자성리학의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보급시키는 과정에서 불교를 탄압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갔다. 성종대는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성리학을 근간으로 한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불교억압책과 함께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도 계속 견지하였다. 성종대에 대규모로 금산사 중창불사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 왕실의 친불교정책과 아울러 사찰의 자구적인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다. 특히 금산사 오층석탑의 중창은 덕원군을 중심으로 한 왕실의 지원과 신행조직을 결성하여 중창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승려와 향도들의 노력들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중창기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덕원군은 세조의 서자로 1468년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덕에 공신이 된 인물이다. 덕원군은 1472년 회암사에 머물면서 불공을 올린 것

27) 금산사에 관한 기록으로는 필사본으로 1635년의 기록을 1705년(숙종31)에 고쳐 쓴 『金山寺事蹟』과 『金山寺誌』가 있다. 이 사료는 임란의 방화로 인해 사중의 전하는 기록이 없어 『三國史記』에 의하여 편찬한 것으로, 임란 이전의 기록은 매우 허술하다. 그리고 『금산사사지』는 더 후대에 편찬한 건으로 문헌적 가치는 『金山寺事蹟』보다 못하다. 한국불교연구원, 『韓國의 寺刹11-金山寺』(一志社, 1985), pp.15-32 참조.

이 문제가 되어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조선왕조실록』기록에

덕원군 이서는 貴戚의 신하로서 종을 놓아 중을 만들고, 또 勸文을 만들어 자기 圖書를 눌러서 중들에게 나누어 주어 마을 구석을 두루 노닐며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현혹시켜 민간의 재물을 좀먹고 있으니, 그 해됨이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으리까. 청컨대 종부시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옵소서라 하였으나,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28]

라는 기록처럼 성종의 비호하에 회암사와 원각사 등 여러 사찰의 법회에 참여하며, 직접 권선문을 썼다. 위의 내용처럼 불사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 독실한 불자임을 알 수 있다. 덕원군은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불사에 참여하기 전인 1472년(성종3)에는 고창 선운사의 불사에도 같은 역할로 참여하였다.[29] 이렇게 전라도 지역의 불사에 적극 관여한 인연으로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에서도 대공덕주의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각공 등 선운사 중창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 금산사 중창(1460-61년)에도 연속 참여하고 있어 전라도 일대의 불사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는 억불책으로 일관한 시기이지만 조선 전반기에는 많은

28) 『연산군일기』 권29, 4년 5월 19일, 연산군 4년, 1498년

29) 선운사의 중창주 幸浩 克乳의 제자 종심 등은 쇠락해진 선운사와 그 주변 형세에 대한 글을 서울의 덕원군에게 가지고 가서 불사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덕원군은 선운사 중창에 유용하게 쓰일 願文과 祖宗의 魂記를 써줌으로 선운사 중창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선운사의 불사는 중창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탑, 장명등, 제석대 등을 제외하고 1472년에서 1483년 사이에 총 111개의 殿 · 堂 · 門 · 寮 · 閣이 새롭게 중창된 대규모의 불사였다. 덕원군, 「形止案」, 『禪雲寺誌』(성보문화재연구원, 2003), p.113 참조.

왕실 주도 불사가 있었다. 금산사의 경우는 왕실이 사찰의 불사에 시주를 권하는 역할로 참여하여 불사에 필요한 재원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참여한다.

또한 당시 금산사 관할 지역 지방관료도 시주에 참여했음을 중창기에 적고 있다. 그러므로 1492년에 행해진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에는 왕실과 관료, 그리고 일반대중들이 대거 참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 불상 봉안의 의미

한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석탑에 舍利孔을 조성하고, 이 안에 불상을 봉안한 전통이 시작되었고 조선후기까지 지속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왕실의 원찰로 조성된 경주 황복사 삼층탑의 사리함(도 27)의 명문에

〈도 27〉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함〉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神龍 2년(706) 경오년 5월 30일에 지금의 대왕이 부처 사리 4과와 6치 크기의 순금제 미타상 1구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권을 석탑의 둘째층에 안치하였다. 이 福田으로 위로는 神文大王과 神睦太后, 孝照大王의 대대 聖廟가 열반산을 베고 보리수에 앉는데 보탬이 되기를 빈다. 지금의 隆基大王은 수명이 江山과 같이 오래고 지위는 閼川과 같이 크며 천명의 자손이 구족하고 칠보의 상서로움이 나타나기를 빈다. 왕후는 몸이 달의 정령과 같고 수명이 劫數와 같기를 빈다. 내외 친속들은 옥나무처럼 장대하고 보물 가지처럼 무성하게 열매 맺기를 빈다. 또한 梵王 帝釋 四天王은 威德이 더욱 밝아지고 氣力이 자재로와져 천하가 태평하고 항상 법륜을 굴려 三塗의 중생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六道 중생이 즐거움을 받으며 法界의 중생들이 모두 佛道를 이루기를 빈다.[30]

라 하였다. 이는 탑 안에 부처의 진신사리와 불상, 그리고 경전을 함께 봉안하는 공덕으로 선대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세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神將의 위덕으로 국가가 태평해지고 중생의 득도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고려시대부터는 기단부에도 불상을 다량으로 봉안하였으며, 조선전기에 이르러서는 탑 안에 불상을 봉안하는 방식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불교의식집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

30) 「皇福寺 金銅舍利函記」, "夫聖人垂拱處濁世而育蒼生至德無爲應閻浮而 濟群有 神文大王五戒應世十善御民治定功成 神睦太后 孝照大王奉爲 宗廟聖靈禪院伽藍建立三層石 塔聖曆三年庚子六月一日 神睦太后遂以長辭 高昇淨國大足二年壬寅七月廿七日 孝照大王登霞神龍二年丙吾五月卅日 今主大王佛舍利 四全金彌陀像六寸一軀無垢淨光大陀羅尼經一 卷安置石塔第二層以卜以此福田上資 神文大王 神睦太后 孝照大王代代聖廟枕涅盤之山 坐菩提之樹 隆基大王壽共山河同久位與軋川 等大千子具足七寶呈祥 王后體類月精命同劫 數內外親屬長大玉樹茂實寶枝梵釋四王威德增 明氣力自在天下太平恒轉法輪三塗勉難六趣受 樂法界含靈俱成佛道", 韓國古代社會硏究所,『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駕洛國史蹟開發硏究員, 1992).

1529년(中宗24) 목판본에 당시 예불 및 공양의례와 點眼文과 여러 請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塔點眼文에[31]

금일 어느 곳, 어떤 사람이 어떤 願으로 훌륭한 장인에게 명하여 某塔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러 층의 한 자리 안에 다보여래, 석가여래, 좌우보처보살을 안치하고, 某寺에 모셔와 봉안하였습니다.

라고 하여 탑 점안 의식에 불상을 봉안하였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점안문은 1529년 간행되었지만 후쇄본이므로 조선 전기부터 이러한 의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1719년(숙종45, 강희58) 해인사에서 重刊한 목판본 塔點眼文을 보면

특별히 양공에게 명하여 정성스럽게 某탑 某층 一座를 만들고, 그 안에 불존상을 모시고 某사찰 뜰에 정성스럽게 법연을 베풀어 점안합니다.[32]

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봉안하는 불상의 존명을 한정하지 않고 불상으로 통칭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탑 안에 불상을 봉안하는 전통은 지속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33]

---

31) 조선시대 1529년 간행된『청문』의 '탑점안문'의 내용이다.『請文』(著者未詳, 木板本, 中宗24(1529), 後刷本) 塔點眼 "開啓如常 切以 示滅雙林 歸(於是)諸國收五色之舍利 起七寶之支提 焉而西域星羅 自此而東丘膺列 今有此日 (某處某人)某願 命良工 而成(某塔) 幾層一座內 安多寶如來釋迦如來左右補處 安邀(某寺) 謹備香燈種種供具 切請緇類 熏勤作法 來寶給莊嚴 若青蓮之湧出 慈容微妙 如皎月之團圓 惟冀三身具而四智成 五眼明而十號足 十方三寶 不捨慈悲 降臨度量 證明功德 (請詞點眼文 請其後 次第 以用)".

32) "特命良匠 敬成某塔某層一座 內安某佛尊像 建于某寺庭中 虔設點眼法",『諸般文』(해인사 1719에 重刊; 朴世敏,『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2輯, 三聖庵), p.667 참조.

33) 이분희,『한국 석탑 불상 봉안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129-131 참조.

특히 고려후기부터 불상에 불복장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사리를 불상 안에 넣어 원불로 모시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산사 오층석탑 중창기에 스님들의 원불을 주조하여 봉안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당시의 신앙형태를 알 수 있다. 원불이란 개인이 소원을 빌기 위해 조성한 부처를 말하는 것으로 구복적 특징이 드러난다. 금산사 불보살상의 경우 비로자나 불입상은 안에 복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른 보살상들은 이미 복장이 개봉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일부 상에서는 직물류가 불상의 내부에 남아 있어 복장을 넣었던 흔적은 알 수 있다. 불복장을 하여 불상을 조성하여 전각에 모시는 것처럼 탑 안에 봉안되는 불상도 불복장을 모두 갖추어 탑 안에 봉안된 것으로 파악된다.

Ⅴ. 맺음말

이상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사리장엄구는 당시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된 중요한 유물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의 완형의 불상들이 발견되어, 당시 탑 안에 다량의 불상을 봉안하였던 신앙적 특징을 이해 할 수 있었다.

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는 사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편이어서 사리장엄구의 시대 편년에 자료를 제공하는 점도 중요하다. 사리장엄구의 법식과 양식에 따른 편년의 설정은 탑의 중수시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려 초기에 조성된 금산사 오층석탑은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재차 매납된 사리장엄구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수기의 기록에 따라 함께 봉안한 불상과 사리장엄구

의 편년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함께 봉안된 불상의 양식도 이러한 역사의 재구성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사리장엄구는 당시대를 대표할 만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려시대 조성되어 납입된 원통형 이중 사리합은 당시대 양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지 않지만 금산사 오층석탑에 봉안된 조선시대 조성된 불상들은 모두 복장을 하여 봉안한 흔적이 있다. 이는 한국 석탑에 봉안된 불상의 특징과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圖版目錄

■ 도1. 〈금산사 오층석탑〉, 석조, 높이 7.2m, 고려시대, 전북 김제 금산사

■ 도2. 〈母岳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紙本墨書, 길이 195.5cm, 조선 1492년,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3. 〈금동사리병〉, 동제, 본체 길이 3.5cm, 원지름 9.5c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4. 〈은제사리합〉, 은제, 작은 합 원지름 2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5. 〈청동원통형합〉, 동제, 높이 14cm, 원지름 9.5c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6. 〈청동오층탑〉, 동제, 높이 7.8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7. 〈청동사각사리합〉, 동제,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8. 〈엽전〉, 동제,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9. 〈홍옥〉, 옥, 지름 1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0. 〈숟가락〉, 놋쇠,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1. 〈금동불입상〉, 금동, 높이 7.5c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2. 〈금동불입상〉, 금동, 높이 9cm, 통일신라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3. 〈금동역사상〉, 금동, 높이 5cm, 미상,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4. 〈옥제동좌좌상〉, 백옥, 높이 4.5cm, 고려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5.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 높이 30.5cm, 대좌고 6cm, 슬폭 16.5cm, 어깨폭 10.5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6. 〈금동관음보살좌상〉, 금동, 높이 12.5cm, 대좌고 3cm, 슬폭 8cm, 어깨폭 6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

■ 도17. 〈금동지장보살좌상〉, 금동, 높이 8.2cm, 슬폭 6.8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8. 〈금동삼존상〉, 금동, 비로자나불입상 : 높이 14cm, 관음보살입상 : 높이 12.8cm, 지장보살입상 : 높이 12cm, 조선시대, 금산사성보박물관

■ 도19. 〈불일사 오층석탑〉, 석조, 951년, 개성 고려박물관

■ 도20. 〈하치우마 다다스 기증 사리병〉, 고려시대, 국립중앙박물관

■ 도21.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봉안 숟가락, 화엄사성보박물관

■ 도 22.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장엄구 일괄〉, 고려, 월정사성보박물관

■ 도 23. 〈고봉국사 주자원불〉, 고려후기, 금동, 송광사성보박물관

■ 도 24. 〈금강산 차일봉 출토 금동아미타삼존상〉 조선전기, 금동, 본존 높이 13.2cm, 평양중앙역사박물관

■ 도 25. 〈개심사 아미타삼존불상〉, 고려후기, 목조, 서산 개심사

■ 도 26. 〈공주 신원사 오층석탑 출토 엽전〉 고려시대, 불교중앙박물관

■ 도 27.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함〉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參考文獻

1. 史料

■『東文選』

■『釋文儀範』

■『諸般文』

■『朝鮮王朝實錄』

■『請文』

2. 單行本

■강우방,『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1993.

■고유섭,『韓國塔婆의 硏究』, 동화출판사, 1967.

■『되찾은 문화재 되살린 문화재』, 불교중앙박물관, 2012.

■박경식,『탑파』, 예경, 2001.

■『禪雲寺誌』, 성보문화재연구원, 2003.

■신대현,『한국의 사리장엄』, 혜안, 2003.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통도사성보박물관, 2000.

■『佛舍利와 莊嚴』, 국립중앙박물관, 2006.

■『열반, 궁극의 행복』, 불교중앙박물관, 2014.

■『월정사성보박물관도록』, 월정사성보박물관, 2002.

■『韓國의 寺刹 11-金山寺』, 일지사, 1985.

3. 論文

■권아름,『高麗 舍利莊嚴具 硏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윤정,「고려시대 금속제 소형탑의 조성 배경과 유형」,『미술사연구』25, 미술사연구회, 2011.
■ 박보군,「고려시대 금속제 탑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아연,「1493年 水鍾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美術史學硏究』269, 韓國美術史學會, 2011.3
■ 신명희,「高麗時代 舍利莊嚴具 硏究」,『東岳美術史學』5, 東岳美術史學會, 2005.
■ 신용철,「신라 불탑에 있어『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영향」,『불교학연구』제23호, 불교학연구회, 2009.
■ 이분희,「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考察-탑안에 봉안된 불상을 중심으로-」,『東岳美術史學』15, 동악미술사학회, 2013.
■ 이분희,「조선 15세기 탑내 봉안 불상의 고찰」,『미술사학연구』283 · 284, 한국미술사학회, 2014.
■ 이분희,『한국 석탑 불상 봉안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유근자,「조선 전반기 불상조각의 조성기 분석을 통한 조성 배경 연구」,『講座術史學』36, 韓國佛敎美術史學會, 2011.6
■ 원유한,「조선전기 화폐사의 역사적 성격」,『문명연지』19, 한국문명학회, 2007.
■ 주경미,「고려시대 월정사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재론(再論)」,『진단학보』113, 진단학회, 2011.
■ 주경미,「화엄사 서오층석탑 출토사리장엄구의 고찰」,『불교중앙박물관 상설전 도록』, 불교중앙박물관, 2007.
■ 주수완,「皇福寺 全金佛立像 연구」,『불교미술사학』4, 불교미술사학회, 2006.
■ 주수완,「중국문헌을 통해본 중세 동남아의 불교문화(Ⅰ)」,『수완나부미』2권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 2010.
■ 진나라,「조선전기 社長의 성격과 기능-불교신앙활동을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22, 한국사상사학회, 2004
■ 진홍섭,「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硏究」,『考古美術』80, 韓國美術史學會, 1988
■ 최응천,「조선 전반기 佛敎工藝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 명문과 도상적 특성」,『講座術史學』36, 韓國佛敎美術史學會, 2011.6
■ 황수영,「金山寺五層石塔 重創記」,『考古美術』129 · 130, 韓國美術史學會, 1976

Abstract

A Studies on Geumsansa Temple's Five-Story Stone Sarira Reliquaries

Lee, Boon-hee Central Buddhist Museum

In dismantling and repairing Geumsansa Temple's Five-story Stone Pagoda, discovered from within the pagoda were sarira receptacles and Moaksan geumsansa ocheungseoktap jungchanggi (Construction Records on Moaksan Geumsansa Temple's Five-story Stone Pagoda). The records give a detailed description of Geumsansa Temple's Five-story Stone Pagoda construction time, reconstruction situation, and related personnel, making them an important material in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Geumsansa Temple in the first half period of the Joseon.

Likewise, items contained in the Five-story Stone Pagoda Sarira Reliquaries -- such as a copper sarira bowl and two small bowls, a Five-story Bronze Pagoda and seven coins, eight Buddha images, and one cherub figure -- are very important materials in understanding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rly-time Joseon Sarira Reliquaries in the history of arts. The reconstruction records describe the process

of demolishing the pagoda, the discovery of Sarira Reliquaries, and the process of enshrining Sarira Reliquaries in the pagoda. It was also revealed that, with the support of the royal household with Prince Deogwongun as the biggest sponsor, a large number of the region's local officials and monks participated in Buddhist affairs. The local governor, too, encouraged the Hyangdo community to allow many worshippers to participate in Buddhist affairs.

The Sarira Reliquaries enshrined inside the pagoda were provided during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pagoda and are characterized according to the times. In particular, Buddhas enshrined inside the pagoda were created in 1492 when the pagoda was constructed and were served by monks. They are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Buddhist sculpture styles around the 16th century. It is very interesting to enshrine Buddhas inside the pagoda and to install Sarira Reliquaries containing statues inside which sariras are put, without using other apparatuses.

Buddhas were enshrined in the Geumsansa Temple Pagoda presumably because, with devotion to the Buddha image being heightened, individuals' faith of seeking blessings was popular. In other words, as Buddha images were enshrined in worship halls, they were also enshrined in pagodas, a new faith trend at the time.

Keywords : Geumsansa Temple's Five-story Stone Pagoda Sarira Reliquaries, reconstruction time, Buddhist affairs in the first half of the Joseon period, royal household's request, local governor and Buddhas enshrined within pagodas

부록

〈母嶽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

■ 夫此寺者伽葉佛時古基王泰祖 重興國
■ 寶第一禪刹之最也年久而傾危頹圮大歷
■ 元年丙吾歲眞表律師勸善檀緣彌勒大
■ 殿三層丈六三尊鑄成及與諸殿諸僚俱
■ 排矣像季己還道術旣 裂明心之士忘認
■ 緣 塵爲物所轉修善作福者今己久矣越
■ 庚辰辛巳年間
■ 世祖大王朝重興佛法古基禪刹重修 敎旨
　板 楞于時同盟善發比丘信靑學虛竺文戒
■ 闍了明覺空覺休覺 梅祖敏休等奉
■ 敎勸善檀那說法殿爲主諸僚十餘位
　造 排丹艧畢矣又有五層石塔傾危久矣
■ 幸時幸人社長朴仲延社長金致敬尹同僧
　海山僧白忠了明等善承
■ 德原君 懿旨勸善 念佛社長同結香徒萬餘人
　及與善男信女千餘之徒同發善心願捨珎財
■ 命工求材壬子九月十五日赴役同月二十五日
■ 破塔時異香馥丈六出汗瑞氣盤空塔內
■ 舊標釋迦如來舍利五枚定光如來舍利二枚分
■ 身一枚幷三枚
■ 鍮筒藏置開出萬人致敬右舍利壬子十一月
■ 十五日還藏塔中又了明願佛鑄像學宥願佛
■ 鑄像兼藏塔中 右塔昔書載錄
■ 大平興國四年起始
■ 大平興國七年壬吾歲畢造

■焉與諸惱流社長化主施主記于後列
■弘治五年十一月 日誌
■施主司果金允崗
■大功德主德原君
■行金遘縣令柳 灑
■從仕郎金應商
■知事化主前月南寺住持大禪師學虛
■知事前興國寺 持大禪師竺文(外僧俗約二百名)

이분희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한국 석탑 불상 봉안 연구」,「조선 15세기 탑내 봉안 불상의 고찰」,「조선전반기 아미타불상 연구」 등이 있다.